

## 제2공항 공론화 놓고 첫날부터 파행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자치도 행정사무 감사  
환경도시위 의원 간 고성 오가며 설전... 한때 정회  
안전·재해 예산 집행률 지적·태풍 피해 보상도 당부

제주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첫 날 제주 제2공항 건설 관련 도민공론화를 둘러싼 파열음이 나왔다.

>>>관련기사 2면

도의회가 발의한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가운데 내부에서 의견충돌이 발생하면서 결의안의 상정·처리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제주도를 상대로 열린 제주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첫 날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에서 제2공항 도민공론화를 두

고 의원간 설전이 벌어지면서 한때 정회되는 등 파행을 빚었다.

이날 안창남 의원(무소속, 제주시 삼양·봉개동)은 지난 8일 김태석 의장과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이 공동 발의해 제출한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적절성과 의원간 소통 부족을 문제삼았다.

특히 특위 구성에 수반되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부분과 도민공론화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도 꼬집었다.

안 의원은 "의회가 스스로 잘못하는데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뭘

바르잡겠다는 것인가"라며 행감 중지를 요청했다.

이에 박원철 위원장은 "특위 구성 결의안 발의 때 전체위원의 의견을 다 묻고 하느냐"며 "도지사가 지난 2일 공론화 불가 입장을 통보해서 도의회가 공론화를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 의회가 직접 처리하는 게 어렵느냐는 차원에서 발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두 의원의 공방이 이어지자 소속 위원들이 정회를 요구했고, 환도위 감사는 잠시 정회 후 속개됐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의회가 요청할 시 2공항 도민공론화 예산을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냐는 현감호 의원의 질문에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곤란하다고 본다는 개인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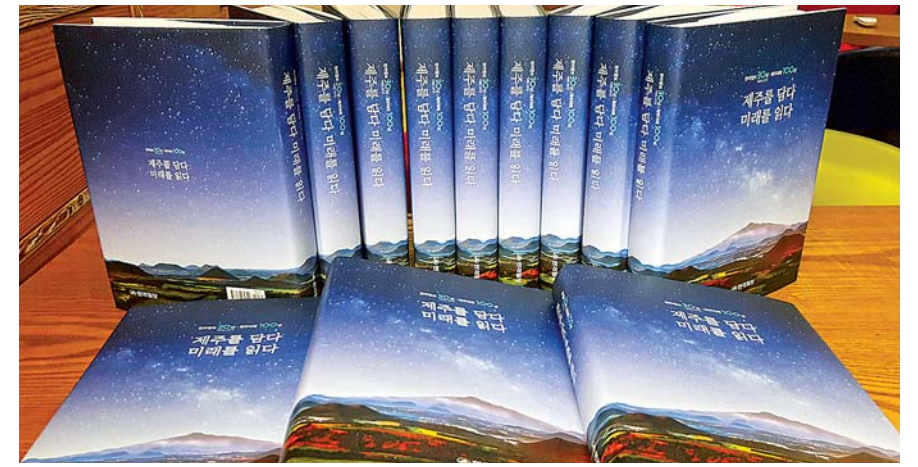
행차위 소속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제주시 용담 1·2동)은 전성태

부지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도민 안전과 자연재해 관련 예산 집행률이 많이 떨어진다"며 "사전 예방 차원에서라도 자연재해 관련 예산 집행은 빨리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속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상대로 제주도의 태풍 피해 대책인 휴경보상금과 관련해 "진일보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지원단가는 현실과 거리가 멀다. 수급조절이 아닌 피해보상에 대한 정책이 있어야 하며 재년으로 피해 본 도민을 외면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위원장과 이승아 의원은 제주도가 발표하는 입도관광객 통계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 '한라일보 30년, 제주미래 100년' 제주의 어제 조망하고 내일을 읽다

한라일보 30주년 '30년사' 3부 구성 언론·사회 변화상 전문가 집필한 논문과 전망 제주사회 진단과 대안 모색

'제주의 대표신문' 한라일보가 창간 30주년을 맞아 540여쪽 분량의 한라일보 30년사(사진)를 묶어냈다. '한라일보 30년(1989-2019) 제주미래 100년'이란 부제가 달린 '제주를 담다 미래를 읽다'이다.

3부로 구성된 '제주를 담다 미래를 읽다'는 한 세대에 해당하는 지난 30년 동안 제주도민과 더불어 성장해온 한라일보의 발자취는 물론 제주사회의 변천사까지 살필 수 있도록 짜여졌다. 30년에 걸친 제주사회 변화의 흐름을 글과 사진 등 언론의 시선으로 기록했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마주하고 있거나 당면하게 될 여러 화두를 전문가의 눈으로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1부에서는 제주언론의 태동, 1980년대 언론통폐합 등 제주언론사를 들여다봤다. 1989년 4월 22일 1도 1사의 통제된 언론 환경을 깨며 민주화의 큰 흐름을 타고 태어난 한라일보와 언론 환경의 변화도 다뤘다.

2부는 현직 기자들이 집필을 맡아 제주사회 30년의 변화와 발전상을 정리했다. 정치·행정, 지역 경제, 사회·복지, 교육, 문화, 교통환경, 자연환경, 관광, 지역개발과 사회갈등, 스포츠 등 분야별로 만날 수 있다. 마지막 3부는 각계 전문가들이 필

진으로 참여한 논문과 전망으로 꾸며졌다. '지방분권시대와 제주도', '4차 산업혁명시대와 제주경제', '질적 성장과 혁신에 달린 제주관광의 미래', '저출산 초고령사회와 다문화시대', '제주 교육과 100세 시대 평생교육', '지역개발과 생활환경, 도시화의 방향', '청정과 공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그린아일랜드', '제주, 평화와 인권, 통합의 미래로'라는 주제로 현재를 조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내다봤다.

30년사 앞쪽에는 '사진으로 보는 제주사회의 30년'을 배치했다. 1989년 신제주 전경, 1990년 제주시 원도심, 2002년 제주도청 현관에 걸린 제주국제자유도시 출범 현수막, 2005년 제주 세계평화의 섬 지정 서명식,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식 등 제주사회의 역사적 장면 등을 포착한 사진을 수록했다. 비매품. 문의 064)750-2540, 2291. 전선희기자

## 제21대 총선 D-180 위법 예방활동 강화

오는 18일부터 국회의원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인쇄물을 배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180일 전인 오는 18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안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으로 단정짓기에는 어려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있음을 전제로 이 행위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이나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은 선거일 180일 전인 17일까지 지진 철거해야 한다.

도선관위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제주 임성재, 아놀드 파머상 수상 16일 서귀포시 클럽 나인브릿지에서 열린 '더 CJ컵 @ 나인브릿지' 공식 기자회견에서 임성재가 PGA 신인상인 아놀드 파머상을 들고 부모님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사례 등을 각 도당·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예방·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선거 관련 궁금증은 전화 law.nec.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390) 또는 선거법규포털(http://) 있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기획 / 9면... 과잉관광 대안을 찾아서 ①프롤로그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우리 아이가 가고 싶어합니다.  
교사·부모·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공교육 혁신모델

이곳은  
**'다훈디배움학교'**  
입니다

2020 다훈디배움학교 6교 신규지정  
[가마초, 대흘초, 영평초, 하도초, 하원초, 한천초]

2020학년도 다훈디배움학교 재지정 공모  
대상: 운영 2년차, 4년차 학교 13개교 (10월 14일 ~ 11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